

영·호남 학생들 '우정의 타임캡슐' 20년만에 개봉

전남-경남도교육청, 1999년 묻은 타임캡슐 오는 17일 동시 개봉



20년전 인물한 영·호남 학생들의 꿈과 희망 타임캡슐.

영·호남 학생들의 꿈과 우정이 담긴 타임캡슐이 20년만에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영·호남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10대들의 우정을 담아 20년전 제작해 묻은 타임캡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담양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경남도교육청도 경남 의령 경남학교 교육원에서 역시 20년 전 묻은 타임캡슐을 연다.

이날 전남쪽 개봉행사에는 20년 전 타임캡슐에 '꿈과 우정의 약속 카드'를 봉인했던 주인공 50여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

이 성인이 된 모습으로 참석해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세월의 흐름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경남교육청 김상권 학교정책국장과 장학사, 20년전 봉인행사 당시 전남교육청 실무자 등은 이 날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2019년 당일 옮겨 개봉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봉식에서는 약속카드 주인공 두 명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약속 카드를 낭독하고 또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타임캡슐 주인공 중 한 명의 성장과정 20년을 담은 영

김성환 기자

상률로 상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1999년 5월 26일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고 새천년 주역이 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타임캡슐을 봉인해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교육대학교 의령분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다.

당시 전남과 경남의 초등 어린이회장 1072명(전남 559, 경남 513)의 꿈과 희망들이 담긴 약속 카드가 봉인돼 있다. 이들은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의 나의 모습, 경남(전남) 친구에게 바라는 글 등을 B5 크기 용기에 작성한 뒤 약속카드로 코팅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개봉한 타임캡슐과 약속카드를 전남과학교육원에 입시보관한 뒤 전남교육박물관(설립 예정)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표지석은 원래의 자리인 전남교육연수원에 보관한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4월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뒤 타임캡슐 개봉을 준비해 왔으며, 공개적으로 당시 약속카드를 작성했던 주인공 찾기에 나선 결과 300여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들은 30대 초반의 성인이 돼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기자

장흥교육지원청, 5·18 민주화 운동 현장체험학습 실시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은 12일 장흥관내 초·중학생 및 마을학교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선열들의 유해가 안치된 5·18 국립 민주묘역을 참배를 시작으로, 5·18 자유공원 방문을 통해서는 당시 시민들이 고초를 겪은 구 상무대 군법정과 영창 등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5·18의 최후 항거지인

구 도청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던 전일빌딩 등을 방문하여 그 날의 생생했던 현장을 들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흥교육지원청 임효순 교육지원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장흥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장흥연합학생회 및 미술학교와 함께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송호빈 기자

◆ 광주지국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화순군립미술관

전라도의 정론지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 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전남교육청, 예술 특목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확정

2020년 3월 광양시에 개교 예정인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술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 교명이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로 확정됐다.

전라남도교육청(교育감 장석웅)은 최근 창의성과 심미적 감성을 갖춘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신설되는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 교명을 공모한 결과 인천시 강화군 거주 고미자 씨가 제출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최종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14년의 응모작에 대해 1차 심사를 통해 3편의 후보작을 선정하고 2차 심사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순위를 정한 뒤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1차 심사 결과는 1순위 '한국창의예술고', 2순위 '남도창의예술고', 3순위 '마로예술고등학교' 등이다.

이번 당선작은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선도함은 물론 세계 수



준의 학교로 도약하려는 창의예술고의 비전과 포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선도 세계 수준 창의예술인 양성' 의미
공모전에 142점 응모…당선작에 고미자(인천시)씨 작품

도교육청은 창의예술고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초 2020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한 뒤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전국 첫 '진로·학업설계서' 제작

광주시교육청,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지원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진로·학업설계서'를 제작·보급한다.

또 진로 탐색과 과목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과목 선택 기이드, 학과·직업 정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자료를 한 권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1학년 학생들에게 빛诅진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되는 민족 진로 설계와 선택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주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빛诅진리를 제작·보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빛诅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교사(14일), 1학년 부정(17일), 교육과정 담당자(21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진로를 탐색하면서 흥미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며, 학교는 개별 학생의 진로 변화 경로를 파악하고 과목 선택, 과목 학습 이력 등을 딱각도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 박철영 장학관은 13일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제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되는 민족 진로 설계와 선택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주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빛诅진리를 제작·보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빛诅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교사(14일), 1학년 부정(17일), 교육과정 담당자(21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시간을 가졌다.

가족캠프에 참석한 학부모는 "이번 가족캠프를 통해 장애를 지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백남근 교육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한 이번 가족캠프를 통해 장애학생의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2일차에는 녹차쿠키와 가족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훈을 꾸며보는

보성=인구일 기자